‘거짓말설교’ 없는 교회를 꿈꾸며

(역대하 18:4~34)

4.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 보소서 하더라
5.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6.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8.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거짓말 설교’ 없는 교회를 꿈꾸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거짓말설교’ 없는 교회를 꿈꾸며

거짓말설교 없는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는 거짓말설교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 누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향하여 당신의 설교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거짓말설교를 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설교를 확증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또한 제가 공부한 조직신학도 교회에서의 선포의 진위를 가리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 학문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짓말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제목에서 ‘거짓선지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거짓말설교’라고 한 이유는 거짓선지자를 확증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선지자는 예외 없이 반드시 거짓말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선교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짓선지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거짓말설

교의 기준에 대해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 설교학을 배우지만 이 설교학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설교와 참 설교를 구분하는 기준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설교를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것이 주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말설교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거짓선지자라서 그런 것인지, 거짓말설교에 대해 배우고 그 기준에 따라 설교를 해보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정도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엘리야나 엘리사 때에도 선지자 학교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에게도 배움과 들음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거짓말설교가 무엇인가를 먼저 가려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타종교나 이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요새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 이민행정명령이 억지스럽게도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7개국 입국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엊그제는 캐나다 퀘벡에서는 27살의 정치학도가 이슬람 사원에서 5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총기난사를 하여 6명이 죽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는 끊임없이 이단이 생겨나서 목사님들이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쏜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이슬람이 엄청난 속도로 북미와 유럽에서 확장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런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만 합니다.
본래 교회의 근간은 말씀에 있습니다. 타종교와 이단들에게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본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 설교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성 교단들에서 거짓말 설교를 없애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거짓말 설교에 대한 기준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거짓말 설교의 기준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기준은 무척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 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략결혼에 근거한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을 치기 위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거짓 선지자 사백 명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시절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팔백오십 명과 결투를 해서 이겼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 밖에 없다며 탄식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사백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끝마친 아합 왕을 부추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참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합 왕은 이 미가야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설득하여 미가야를 호출하자 미가야는 아합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을 시작하여 결국 아합은 죽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설교를 듣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의 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설교를 어떻게 가려내야 하는 것일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다 떨어져나가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떨어져나가고 건강도 다 떨어져나가고 친구들과 사회적 명예와 체면, 아내까지도 떨어져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다 떨어져나갔다’는 것은 욥의 입장을 이해하기는커녕 비난만 함으로서 다 떨어져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욥이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참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이 겪은 일련의 과정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욥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알몸이 되었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으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알몸이 되는 과정에서 마음도 알마음이 되어서 마음 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음을 붙일 수 없고, 몸에도 마음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체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음 붙일 대상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알몸(적신)이 되는 동안에 마음도 알마음(적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마음이 되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을 보게 되었다는 구절이 이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 동안은 자식들을 실감나게 보았습니다. 또한 떠나간 아내를 실감나게 보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을 실감나게 보며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과정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의 길을 걷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은 삶의 매순간마다 욥의 삶의 여정을 압축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욥의 경우에는 열 명의 자식들이 마음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때에 욥은 자녀나 재산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붙잡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알마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삶의 급박한 사건과 대상들을 앞에 두었을 때에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입니다.

본문에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쟁의 승리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전쟁의 승리를 붙잡았기에 알마음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묶이고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대해 거짓 선지자 사백 명이 와서 부채질하는 설교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와서 이 쇠뿔로 찌르듯이 전쟁에서 승리하라며 시청각 설교까지 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다보면 내가 마음에 붙잡은 것에 대해서 하늘의 계시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붙잡은 것들을 실제로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질하는 설교를 들으면 마치 계시처럼 들려오게 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고 존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십만 원짜리 식사대접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를 들은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자식의 형통을 마음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다면 참 설교는 욥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하고, 그 과정을 실현한 것이 십자가 사건임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욥이 자식을 잃어버린 알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은 실제로 자녀들을 잃어서 알마음이 되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알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마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가지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자식의 형통을 쥐고 있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쥐는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설교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한 번 했으면 한 달 쯤 뒤에 또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인들은 급박한 삶의 현장에서 살다보면 반나절 만에 이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돈 앞에서 행하고 거래처 앞에서 행하고 사장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설교 때에도 새벽 기도의 설교에서도 욥의 과정이 압축되어진 십자가를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거짓 설교는 자식이나 사업의 형통을 붙잡은 마음 상태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국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는 설교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곧 죄입니다. 인간의 알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붙는 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상태를 용인하고 묵인하거나 전제로 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씀은 모조리 순도 100%의 거짓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말씀의 삼중형태를 고백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입니다. 이러한 삼중형태는 분리될 수 없이 언제나 하나로 묶여 움직입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성경에 근거되어야만 하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선포되는 말씀으로 전이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듣는 사람의 사건으로 재현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욥의 과정이 순간순간 압축되어 일어나는 삶이 다윗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하여 성전이 존재하였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과정을 거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알마음으로 보면서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은 다른 무엇을 붙잡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설교의 주안점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될 것이라고 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에는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은 마음 상태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마구잡이로 풀어냅니다.
그러나 참 설교라면 어떻게 하든지 사업에 붙은 마음을 떼어내서, 욥이 그랬듯이 알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사업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잘되게 하실 수도 있고 망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특별히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가 제일 어렵습니다. 개업하는 사람에게 안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이미 결정하고서 하나님께 물은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점에서 마음은 사업에 달라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묵인하고 잘 되는 설교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가 듣기 싫은 설교만 한다고 싫어했지만, 사실 미가야는 진짜 설교를 하고 아합을 살리는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번성하게 하실지 망하게 하실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잘 될 것이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개업 설교라면 개업하는 집사님의 마음이 알마음이 되도록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붙잡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마냥 잘될 것이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묻지 않고 기어코 사업을 벌이고는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보다 먼저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욥의 과정이 압축된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에서 사업을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업을 붙잡고 있는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알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계속 사업을 붙잡고 밀고 나갑니다. 그럴 때에 아합 왕이 자기가 결정한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일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참 설교와 거짓 설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거짓 설교를 한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 십자가 생활화로 이루어지는 참 설교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라는 말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다면 그분들도 참 설교와 거짓 설교를 구분하는 기준을 배운 적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날마다 십자가를 오늘의 사건으로 전달하는 것으로서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설교자가 임의로 설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붙잡은 마음을 전제로 하여, 공중 폭격을 하듯이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고 설교를 해버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상과 붙은 마음을 전제로 하여 설교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세상과 붙은 마음을 십자가로 떼어내려고 하는 설교인지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세상과 붙은 마음을 십자가로 떼어내는 설교가 나를 살리는 설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주제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 거짓 설교의 기준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설교를 몰아내기 위한 기도부터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